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129-144)

God's Wonderful Word

(Psalm 119:129-144)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묘자'로 모든 놀라운 것들이 그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에는 wonder 혹은 wonderful 이라는 단어가 32회 나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과 그에 대한 순종이 함께 나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The prophet Isaiah calls Jesus Christ a Wonderful Counselor and says that all wonderful things flow out from Him. The words 'wonder' or 'wonderful' are mentioned 32 times in this Psalm. The psalm describes his 'wonder' for God's word in connection to 'obedience.' The psalmist tells us seven ways that God's word is wonderful.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놀라운지에 대해 다음의 7가지로 말합니다.

- 1. 주의 말씀은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성경을 읽으면 생명이 빛이 비칩니다. 성경은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 2.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 동정, 선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버려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 3.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성경은 수많은 신앙의 선인들의 발자국을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죄를 이긴 승리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 4.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 5.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
성경은 하나님 성품의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성경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 6.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
참 의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요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 7.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식언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러므로 그가 하신 말씀은 믿을 만합니다.

1. God's word gives understanding to the simple
Whenever we read the Bible, the light of life shines upon us. The Bible opens our eyes to see Jesus Christ, and opens our mind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God.

2. We can find God's love in the Bible
The requirement for Christians is not to be righteous, have sympathy, or recognize goodness, but to receive God's love which saves us from our sins. The psalmist found God's love in the Bible. God's love for sinners is the most wonderful love of all.

3. The Bible gives us direction in life
The Bible gives us direction according to the footsteps of many faithful predecessors and directs us in the victorious path that defeated sin and gave us eternal life.

4. God is in His word
Jesus says, "Whoever sees me sees my father." We can meet Jesus Christ in the Bible, and we can meet God through him.

5. God's word is righteous
The Bible is a mirror of God's character. Therefore whoever wants to be righteous can learn by reading the Bible.

6. God's word is trustworthy
God teaches what real righteousness is in the Bible: He is trustworthy, so He will keep His promise at all costs.

7. God's word is truth
God never tells a lie or breaks His promise. God's word is trustworthy because His word is tru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므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By hearing, reading, and learning God's wonderful w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keep His commands and continue our devoted live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94회 교단총회에서 우리교회 표창받는다

미자립교회 지원에 헌신적 모범 보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4회 총회가 9월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열린다. 총회는 22일(화) 미자립교회 지원을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시행한 서울교회가 전국교회에 모범을 보여주므로 표창키로 했다. 우리교회는 제 91회, 92회 총회 시에도 총회장의 표창을 받은 바 있다.

호산나학교 교훈과 교가 제정되다

-교목 겸 사감을 청빙키로-

호산나대학 법인이사회(이사장: 이종운 목사)가 지난 8월16일 호산나 학교 교훈과 교가를 제정 발표하였다. 교훈과 교가는 이종운 목사가 작시한 아래의 내용에 박정선 장로가 작곡을 붙이기로 하였다.

<교가>

- 저 푸른 한강수 유유히 흐르고
청운산 언덕이 능글능글 돌렸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해처럼 비추리 영광일세 호산나
(후렴)
아- 아- 우리는 예수님 사도
아- 아- 우리들의 호산나대학(학교)
- 산처럼 겸손하고 물처럼 온유하며
대처럼 굳게 서서 힘차게 살리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유하라 호산나 영광일세 호산나
(후렴)
아- 아- 우리는 예수님 사도
아- 아- 우리들의 호산나대학(학교)

청평 새 캠퍼스로 이전을 앞두고 호산나 대학은 대안학교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방과 후 교실은 부득이 대치동에서 이번 학기로 문을 닫고 새 캠퍼스 정착과정에 따라 그곳에서 다시 개설케 된다.

호산나전문대생과 대안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입사를 하되 지원자에 한해 선발 허락키로 하고, 신입생부터는 기숙사 입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는 신앙과 생활훈련을 위해 교목 겸 사감을 청빙키로 하였다.

호산나 법인이사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교훈으로 정

주일 은마아파트 쪽도 주차가능 10월부터 실시예정

9월15일(화) 강남구청 주차정책설명회에서 10월부터 삼성로 주일 노변주차장 현재 한티공원 앞에서 맞은편 은마아파트 앞 노변까지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성도들은 주일예배 시간에 버스정류장(정류장 표기 좌우 20M)과 진출입로를 피해 주차관리부원들의 안내를 받아 일렬 주차하면 된다.



▶ 주차지역

약도에서 붉은색 표시된 부분:

- 농협-한티공원 끝
- 은마파출소 밑-은마상가 입구

이웃사랑, 탈북난민 돕기,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9 열린바자

9월24일(목) 오전 10시 - 개장예배

이웃사랑·탈북난민돕기,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9열린바자가 9월24일(목) 오전10시 교회 정문 앞마당에서 개장예배를 시작으로 25일(금)까지 이틀간 열린다. 우리교회는 지난 91년 설립 이래 교인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바자를 해마다 열어 모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웃주민과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다.

바자에 성도들이 기증하는 각종 물품은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또한 이종운 위임목사 저서 사인 판매 행사가 24일(목)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나눔카페(104호)에서 열린다. 교구별, 다량방별로 하나되고 한마음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점포추첨 3부 예배 후 101호 / 내 작은 사랑이 이웃에겐 큰 소망

바자준비위원회(위원장 이복규 장로)는 오는 9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양일간 열리는 '이웃사랑·탈북난민 돕기·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9 열린바자의 점포 추첨이 오늘 주일3부예배 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오늘 점포 추첨에는 교구를 대표한 교구간사들이 모여 실시할 예정이다.

사랑 나눔 이벤트 / 작은 사랑이 모여 큰 세상을 열어줍니다

이번 2009 열린바자는 '사랑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 사랑나눔 이벤트는 더 이상 입지 않아 옷장에 방치된 떨쩍한 옷 3점 이상을 9월 21(월)-23(수)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기증하면(*기증의류 3점은 최소 수량이며 더 많은 기증도 가능, 단, 기증하시는 물품은 재판매가 가능한 의류) 참여하신 분들께는 CP 천연비누(4주 숙성)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회 참여가 가능하고 이벤트 상품은 기증의류 접수 시 사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랑 나눔 이벤트 참여는 선착순 50명으로 마감한다.

손 소독제 비치

성도 간에 악수의 교제가 빈번한 교회는 최근 신종 플루(Flu) 예방차원에서 손 소독제를 교회 각 층에 비치하였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출입시 이용 바란다.

9월 성경통독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이 달의 성경통독자는 다음과 같다.

- <필사> (5교구)최소희 권사
- <2독> (4교구)홍광숙 권사 (16교구)장양일 집사
- <1독> (3교구)이경구 집사 (4교구)정창빈 집사 최차순 집사 (7교구)이선자 성도 (8교구)김대호 장로 (9교구)유신 집사 조상희 권사 (10교구)이완형 장로 (13교구)김현주 집사 (15교구)김혜란 집사 (16교구)이은희 권사

아가페타운 봉사 남자 성도들 금주부터 요청돼

지난 주에는 15일(화) 뱀비전도회, 화요기도팀 16일(수) 호산나학교 부모회, 17일(목)에스더 전도회, 18일(금) 13-8, 12, 13다락방, 19일(토) 정연수 성도, 최진경 성도의 1명, 김금준 집사의 1명, 장상국 집사의 8명이 봉사를 다녀왔다. (유년부 교사 및 엘리야선교회는 12일(토)에 다녀왔다.)

지금까지 남녀성도들의 많은 봉사로 정리작업은 마무리 되고, 금주부터는 남자 성도들의 힘이 필요한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가페타운에 봉사할 남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금주의 성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7-40)

Jesus repli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Matthew 22:37-40) [NIV]

만민에게 전도 -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김모세, 이한나 선교사(동아시아 파송 예정)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울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A국으로 선교를 가게 된 김모세 선교사입니다. A국은 서울교회가 수년 전부터 진행해온 신학교가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신학교의 사역을 섬기기 위하여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A 지역으로 가기로 서원한 후부터 지금까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유학 시절 그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교지를 찾고 있었을 때에 기독교보에 난 선교사 선발 광고를 보고 이렇게 서울교회와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서울교회의 선교사 모집 공고를 본 후에도 서울교회에서 이러한 선교사역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신문에 나온 대로 지원서에 이미 받았던 선교의 비전을 적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귀국 후 이종윤 목사님을 만난 후였습니다.

이 날 면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저를 미국에서 신학적으로 준비시켜 오신 것이라는 것과 서울교회와 연결 시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를 인도하시고 늘 부족한 종의 가정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 서울교회의 선

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선교를 결심할 무렵 기도하며 붙든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물을 던져야 할 깊은 곳에 대하여 묵상하며 박사 과정을 정하기도 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학위를 받고 미국을 떠나기 전 섬기던 교회에서 온 가족이 이 말씀의 고백이 담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말씀으로 먼저 우리 가정을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처럼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선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심같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우리는 1. 온 가족의 건강과 성령 충만 2. 사역의 안전과 풍성한 열매 3. 도교기도팀의 확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시민양성 - 성경암송대회를 준비하며

올해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신원(중등부)



중등부 안에서 나는 찬양대원도 하고 편집부 활동도 하며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친구들과의 교제도 즐겁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매우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중요시 하는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마음이 찢리곤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믿지만 내 생활은 예수님과 먼 듯 하고, 집회할 때 뜨거운 눈물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이 목사님은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읽어야 하는 마음이 드는 때에 성경암송대회가 있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 암송대회는 고작 1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께 부탁해서 학원을 모조리 다 쉬고 독서실에서 암송 범위인 베드로 전서를 외웠습니다. 나름 대치동 학원에서 스파르타식으로 공부해서 암기력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오해였습니다. 아무리 통째로 외우려고 해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만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외웠습니다. 중등부예선을 통과하고 드디어 당일 날 제일 먼저 외우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암송이 잘되더니 점점 어려웠습니다. 결국 난 다해내지 못하고 장려상을 받게 되었지만 내가 받은 상은 대상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암송한 후 나에게서 희게 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외우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외운 후에도 일상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말씀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외운 것은 성경의 일부였지만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암송대회에 나는 로마서를 영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웃사랑 · 탈북난민돕기 ·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2009 열린바자를 준비하며

사랑의 섬김, 나눔의 행복!

김시환집사(2009열린바자 기획부장)

서울교회는 지난 91년 설립 이래 교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자를 해마다 열며 더불어 사는 세상,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곤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교회 앞마당에서 "이웃사랑, 탈북난민돕기,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바자"를 열게 됩니다.

'아가페타운'이란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인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해 구상해 온 종합복지타운 모델입니다. 그동안 일부 복지관이나 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교회는 상당수 있었지만, 개교회가 종합복지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에선 드문 일입니다. 종합복지타운 내에는 장애인을 위한 대안적 교육시설과, 노인 요양 및 의료시설, 체육관, 기숙사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바자준비위원회는 이번 바자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내가 아끼는 것,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 이웃사랑과 탈북난민돕기, 그리고 아가페타운 건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이웃 사랑을 내 몸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자준비위원회 측이 행사에 앞서 미리 공개한 판매 품목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올해 처음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인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하여 아웃도어 의류와



국내 유명 업체와 건강식품회사 등의 기증품들입니다. 교인들의 가전제품과 화장품, 액세서리, 스포츠 의류 등의 대표적인 기증품 등에 외부 기업들의 참여가 더해져 2만여 점 이상의 다양한 물품이 30%~8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될 예정으로 그 어느 해 보다 기증품이 가득한 바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회사하는 크고 작은 기증품들이 많지 않고 있어 이번 바자에 대한 우리 교인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가 높은 가운데 이종윤 위임목사께서도 자신의 저서를 사인 판매하시게 됩니다.

2009 열린 바자에 기증을 하시는 분이나 구매를 하시는 분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 나눔이며,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전해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2009년 열린 바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가페타운 봉사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섬김



정유석(청년2부)

어린이들,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비지땀을 흘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소망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은 주로 자재를 옮기고 분류하는 일을 맡았고, 자매들은 현장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을 짓고 있다는 마음에 행여나 자재가 상하지는 않을까 모든 작업이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힘든 와중에도 서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는 관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가페'라는 이름처럼 모든 성도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또 하나의 건축 자재가 되어 아가페타운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질퍽한 진흙길을 따라 들어간 체육관 안에서 간이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온전한 화장실도 없었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평보다는 오히려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작업 후에, 본관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규모 있게 갖추어진 목욕시설과 교무실, 강의실, 숙소들을 보니 이곳을 사용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의 모습이 따뜻한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목회자들의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큰 사명-아가페타운을 세우라고 명하시고, 이종윤 목사님께서 이를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건축현장에 나아가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어떤 성도님은 기도로, 어떤 성도님은 물질로, 저희 청년들은 몸과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 저희 청년 2부도 목사님과 선생님과 함께 공사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였는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변 쓰레기를 줍는

천국시민양성 - 디아스포라부

미래지도자들!

탁경준 집사 (무지개영어가카데미 부장)

살롱!!

지난 9월 11일(금) 저녁부터 12일(토) 오전까지 한강난지캠프장에서 서울교회 무지개영어가카데미 학생들의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회 무지개영어가카데미는 북한체제를 탈출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청소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미래의 북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지도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도에 세워진 탈북청소년영어로교실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박광일 전도사님의 열심있는 지도하에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09년 1학기에는 15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무지개영어가카데미에 참가했으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50

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영어캠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25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영어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회 무지개영어가카데미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2008년 6월에 창단되어 소수정예로 구성된 우리교회의 자랑인 미리암 여성선교 합창단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좋은 발성을 통한 독특한 색깔의 하모니와 정교한 발음으로 선교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면서 우리교회는 물론 대외적으로 중요한 선교찬양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주는 반석 (Michael Barrett)"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리며 지휘 김정희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 강은경 선생이 수고한다.

의 꿈을 품고 있는 저에게는 이러한 아가페타운의 시설 하나하나가 더욱 큰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되는 아가페타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모두에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8일(목) 제 1,2 권사회원들은 8층 만나홀에서 성찬식에 사용할 포도즙-60박스 720여 송이-을 짰다.

권사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2일(화) 94회 총회 아침예배 시 설교를 한다. 김광신, 오정수 장로가 이종윤 목사와 함께 총회 총대로 참여한다. 24일(목) 한국로잔위원회 월례모임을 소집한다.

■ 이갑진 장로 세계기독교인회 동아시아지역 부회장 취임 : 9.15-21까지 세계기독교인회(AMCF) 회장단 회의 참석,

■ 개인전: 오은경 성도(4교구) 9.16(수)-22(화) Galloffice KOSCO(마포구 마포동 136-1 한신오피스텔 1616호 T. 324-1511)

■ 주간식당봉사: 제2권사회(9월 20일) 빌립선교회(9월 27일)

■ 금주의 식사: 서창원 집사 이기숙 집사(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 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 건설 공사 위하여
3. 탈북자와 장애인 돕기 열린바자 위하여
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위하여
5.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험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